

# 설탕代替 農産物 스테비아

## 調 査 部

설탕보다 甘度높은 天然甘味資源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생활수준 향상과 食品工業의 발달로 설탕소비량이 급증되고 있다.

그러나 설탕원료인 原糖은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外貨지출액은 연간 약 2억달러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앞으로도 설탕수요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이니 따라 外貨부담 또한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특히 각종 資源의 무기화 경향에 따라 海外市場에서의 원료확보자체에도 문제점이 있다.

스테비아는 최근에 도입된 작물로서 원당수입의 代替농산물이다. 최근에 도입된 작물 스테비아는 설탕대비 약 3백배의 甘度を 지닌 것으로 알려진 스테비오사이드라는 감미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따라서 설탕과 대체하여 식품가공 및 茶類 등의 첨가제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천연감미 자원이다.

지금까지는 國內에서 有害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스테비아의 국내사용이 허가되지 않고 해외수출용으로만 재배되고 있다.

78년 日本에 3백 56톤을 처녀수출, 1백41만4천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였다.

海外에서는 원당수입의 代替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만큼 언젠가는 국내에서도 이의 허용이 검토될 것이 분명하다.

海外-각종 添加物로 活用

따라서 원료의 자체조달이라는 측면에서도 스테비아의 개발을 검토할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하겠다.

스테비아는 국화과에 속하는 다년생 식물. 원산지는 南美의 「파라과이」로 알려지고 있다.

이 물질의 감미도는 이미 설명했듯이 설탕의 3백배에 달하며 低칼로리이고 人體내에서 흡수되지 않고 대부분이 排泄되어 人體에 無害하다는 시험결과가 「파라과이」·日本 등지에서 나와 있다.

따라서 당뇨병이나 비만증환자에게 특히 적합한 감미료로서 애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원산지에서는 각종 飲用藥·茶類의 감미첨가제로 스테비아를 널리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재배방법, 성분의 이용, 식품으로서의 安全性 등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日本에서 시작됐다.

茶類·건강食品등에 사용

日本은 71년 처음으로 스테비아가 도입된 이

후 73~75년까지 3년간 농림수산물 주관으로 전국적인 규모의 試驗연구사업을 실시했다.

현재 日本에서는 스테비아를 청량음료용·식품가공용·健康食品用등의 첨가제로 사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업자들에 의해 精製品の 市販化까지 이뤄지고 있다.

스테비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은 73년·76년엔 農協무역사업소를 통하여 소량수출하기도 했다. 농촌진흥청 관계자가 日本에서 종자 20粒을 입수하여 작물시험장 木浦支場에 시작한 것이 처음의 일이다.

그후 篤農家 및 日人들에 의해 「과라과이」·「아르헨티나」로부터 종자와 묘목의 계속적인 도입이 이뤄졌다.

최근 통계는 잡히지 않고 있지만 지난 77년 2월말 현재 국내 총 묘목보유수는 약 3백 93만 5천본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瑞山·唐津·燕岐를 중심으로 忠南지방에 1백 67만 9천본이 분포되어 가장 많고 다음이 慶北 90만本·京畿 57만 2천本順으로 全國 32개 市·郡에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인 76년에는 재배면적이 5~7ha에 불과했으나 對日 수출품으로 등장하면서 수출업체와 농가간의 재배가 이뤄져 재배면적이 급증했다. 78년엔 2백 70ha규모. 아직까지는 재배기술이 미흡한 것도 사실이지만 76년에 불과 15톤이던 것이 77년 1백 88톤, 78년엔 3백 65톤으로 증가됐다.

스테비아를 國內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재배기술 개선과 우량품종의 보급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甘味料로는 設糖·포도당등 糖類와 사카린등의 人工甘미료·甘草·甘茶등의 천연甘미료가 있으나 전체의 90%가 設糖이다.

## 決 議 文

우리 韓國雜誌協會 會員一同은 10.26事 態以後 內外的 激動하는 情勢속에서 國家의 保衛와 國民의 安寧秩序確立이 最大의 國家的 課題임을 痛感한 바 있습니다.

특히 一部 言論의 逆機能이 얼마나 큰 國家的 悲劇을 몰아왔는지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反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社會 各層에서는 이미 大規模의 인 肅正과 社會淨化作業이 活潑하게 推進되고 있는 狀況下에 우리 全體 雜誌言論人들은 스스로의 자세를 가다듬어야할 時代的 要請을 切感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를 위해 自律的인 勞力을 다할 것을 闡明하는 바입니다.

이에 우리 韓國雜誌協會會員一同은 새 時代, 새 歷史, 創造에 부응하기 위해 雜誌言論風土의 刷新을 기하고 雜誌人의 姿勢를 밝힌 1972年 1月 1日字 「言論自律淨化에 관한 決定事項」을 이 時期에서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決議합니다.

1. 우리 雜誌言論人들은 國家의 保衛와 社會의 安寧秩序確立이 國家的 課題임을 認識하고 雜誌言論은 언제나 國益을 優先하는 입장을 취하며 새로운 歷史創造에 부응한 役割과 使命을 다한다.
1. 國家保衛와 社會淨化의 歷史的 課業을 遂行함에 있어서 雜誌界가 안고 있는 阻害要因을 自律的으로 果敢하게 剷絶하며 健全한 雜誌言論風土를 造成하는데 盡力한다.

1980年 8月 1日

韓國雜誌協會 會員一同